

대한민국 기술 독립

소·부·장 강소기업

(소재·부품·장비)

1차 윤곽 드러났다

중기부·기보, 1064곳 중 301곳 추려 최대 180억 지원... 기술 자립 도모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일본 등 선진국으로부터 기술 독립 '침병 역할'을 할 대한민국 대표 강소기업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스타트업 100곳, 강소기업 100곳, 특화선도기업 100곳씩을 선정, 관련 분야 전문기업을 집중 육성키로 한 가운데 처음으로 '강소기업 100개사'에 이름을 올릴 1차 명단이 추려진 것.

올해 안에 최종윤곽이 드러날 '소부장 100대 강소기업'은 기술개발→사업화→공정혁신 등 모든 단계에 걸쳐 기업당 최대 180억원을 지원받아 기술 자립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R&D사업 우선 지원(최대 20억원) ▲연구인력 지원(3년간 최대 1억 5000만원) ▲자금지원(중진공 정책자금 최대 100억원+보증 30억원) ▲수출지원(수출바우처 등 최대 1억원) ▲스마트 공장 고도화(최대 1억 5000만원) ▲로봇 생산 공정 도입(최대 3억원) 등이 대표적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기술보증기금은 '소부장 100대 강소기업'에 총 1064개 기업이 신청한 가운데 1차 서면평가를 거쳐 301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11일 밝혔다.

1차 서면평가는 국내 기술개발 시급성 등 개발 기술의 중요성(30점), 원천 기술 확보 가능성 등 기술 개발 전략 타당성(30점), 시장 진입 가능성 등 기술 사업화 가능성(30점), 생산품목의 수입대체·수출 전망 등 경제적 성과(10점)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신청 중소기업 중에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공공기관 등 장비 등을 사줄 수요기업에서 추천한 기업이 총 426곳으로, 이들 중에서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165개였다. 수요기업들이 추천한 중소기업들은 '수요처 확보 안정성'의 이유로 서면평가시 일부 가점이 주어졌다.

1차 관문을 통과한 301개 중소기업 중에는 부품이 132곳(43.9%), 장비 91곳(30.2%), 소재 78곳(25.9%) 순이었다. 기술 분야로는 전기·전자가 25.2%(76곳)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 20.6%(62곳), 기계·금속 15.9%(48곳)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절반이 가까운 47.2%(142곳)가 몰려있었고, 충남(8%·24곳)과 경남(6.3%·19곳)에도 비교적 많았다.

기보 관계자는 " 그동안 기보에서 기술평가를 진행한 기업 중 BBB 등급 이상 비율(34.4%)을 훨씬 능가해 선정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국내 최대 자율차의 눈 '라이다' 센서 기업

(주변 사물 감지 3D 모델링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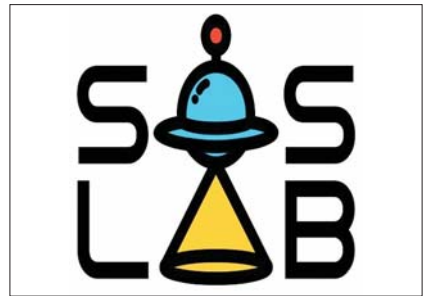
정지성 SOS랩 대표

이미지 센서 '라이다' 연구·개발 "급성장하는 라이다 시장 도전" CES 2020서 SL-1, ML 선보일 예정



다' 시장

라이다는 레이저를 목표물에 비춰 사물의 거리와 물성을 조사하면서 주변 사물과 지형 지물을 감지하고



/SOS랩

"전체 45명의 임직원 중 30명이 R&D 인력이다. 이 가운데 박사만 12명이다. 대기업이나 자동차 회사 내부 산학 연구팀은 라이다 연구를 해도 한 부서, 그것도 많아야 10~20명 정도니까 인력으론 우리가 국내에서 가장 큰 라이다 회사다.(웃음)"

정지성 SOS랩 대표(사진)가 기자를 만나자마자 국내 '최대의 라이다 회사'라고 자랑스럽게 소개했다. 스마트 옵티컬 센서스랩(Smart Optical Sensors Lab)이란 뜻을 가진 SOS랩은 자율주행차용 라이다(LiDAR) 기업이다. 많은 연구 인력을 투입해 라이다 센서를 개발한 결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최근 센서시장 조사기관 LED인사이드 등으로부터 4대 라이다 업체로 선정되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도 했다. 2016년 6월 회사를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박사과정 학생 4명이 창업한 후 3년 만의 성과다.

◆퓨처플레이 도움으로 뛰어난 '라이

이를 3D 영상으로 모델링하는 기술이다. SOS랩은 처음부터 라이다에 관심이었던 것은 아니다.

"스마트 옵티컬 센서로 무엇이든 하려고 했어요. 그러던 차에 퓨처플레이를 만났죠. 류중희 대표님과 스타트업의 본질에 대해 고민해 봤어요. 누구나 할 수 없는 것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시장의 때를 만나 급성장하는 J 커브를 그리는 것이 스타트업이었습니다. 대기업이 진입하지 못한 곳으로 스케일업을 급하게 할 수 있어야 했죠. 그때 시장을 다시 보니 자율주행형 라이다 기획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율차용 라이다 기술은 초기 단계지만 시장은 충분히 성장성이 있었고 무지막지한 돈도 투자되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에서 잘 맞아 떨어져서 할 거면 가장 큰 시장, 가장 핫한 아이템에 우리가 가진 기술을 투입해보자고 생각했죠."

시장의 가능성을 보고 뛰어난 SOS랩의 라이다는 시작과 동시에 큰 주목

을 받았다. 라이다 개발 1~2달 만에 한국전자정보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세메스에서 열린 '대한기계학회-세메스 공동 열린혁신도전 행사'에서 대상을 받았다.

SOS랩의 주력 제품은 전방 장거리용 하이브리드 스캔 라이다 'SL-1'과 후측방 근거리용 빅셀(VCSSEL) 레이저 광 사용하는 'ML'이다. 최근 20대 한정 판매를 진행했고, 현재 10대 정도 판매가 완료됐다.

SOS랩은 CES 2020에 이 SL-1과 ML 두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SOS랩은 현재 산업용 라이다를 만들어 국내 반도체 기업의 생산 라인에 적용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SOS랩의 최종 목표는 범용 라이다를 만드는 것이다.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다를 구현해 산업용 라이다를 넘어 로봇 시장과 보안 시장까지 진출할 계획이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위기의 소상공인 구하기... 중·소진공, 정책시너지 기대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동경제·혁신성장 위한 업무협약 협력네트워크 구축·경영정상화 지원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이상직 중진공 이사장(왼쪽)과 조봉환 소상공인 시장이 협약을 맺고 사진을 찍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의 대표 지원 공공기관인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뭉쳤다.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관련 정책의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다.

중진공과 소진공은 11일 서울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공정경제 및 혁신성장 구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두 기관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

시장 활성화 캠페인 실시와 온누리상품권 구입 장려 ▲위기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금융·일자리 등 정책지원 협력 강화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의 해외진출과 온라인 수출 지원 ▲지역 협력네트워크,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힘쓰기로 했다.

특히 위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등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지원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컨설팅 관련 인력풀을 공유해 지원 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 운영시 교육시설의 지리적 접근성, 교육인원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교류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외국인, 석달 연속 주식 팔았다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석 달째 팔아 치웠다. 채권 시장에서도 순회수로 돌아섰다.

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인상주식 3480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8월 이후 순매도세를 유지 중이다. 코스피 시장에서 6200억원을 순매도한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2700억원을 순매수했다.

지역별로는 미국(-2조 1000억원)과 중동(-300억원)에서 순매도했고, 유럽(1조 9000억원)과 아시아(1000억원)는 순매수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미국(-2조 1000억원), 케이맨제도(-4000억원), 사우디(-1000억원) 등이 순매도한 반면 영국(1조 3000억원), 네덜란드(3000억원),

스위스(2000억원) 등은 순매수했다.

지난 10월 말 기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보유규모는 560조 6000억원이다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2%다.

보유규모는 미국 240조 4000억원으로 외국인 전체의 42.9%를 차지했고 ▲유럽 159조 8000억원(28.5%) ▲아시아 70조 2000억원(12.5%) ▲중동 18조 5000억원(3.3%) 등의 순이다.

외국인은 채권시장에서도 순회수로 전환했다.

10월 중 외국인은 상장채권 3조 164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만기상환 3조 3530억원의 영향으로 총 1890억원을 순회수했다. 외국인이 순회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7월 이후 3개월 만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섬유의 날 기념식... 효성 대표 금탑산업훈장

단일 업종 최초 수출 100억불 기념 "기술·사업역량 확보에 적극 지원"

11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강남구 삼성동 섬유센터에서 올해로 33회를 맞는 섬유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섬유의 날'은 지난 1987년 11월 11일 섬유산업이 단일 업종 최초로 수출 100억불을 달성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날 행사에는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성기학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 등 섬유패션 업계 임직원과 각계 주요인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수요·공급기업 간 긴밀한 협

력모델을 만들어 핵심 기술을 공동 개발하고 양산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금·세제·규제 특례 확대 등을 집중 지원하고 스마트 의류 등 고기능성 소재에 대한 기술개발 및 사업역량 확보를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성기학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은 기념사에서 "R&D·디자인·마케팅·협작 투자 등 글로벌 역량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통상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섬유패션산업발전 유공자에 대해 금탑산업훈장을 비롯한 훈·포장 4점, 대통령 표창 4점, 국무총리 표창 3점, 산업부 장관 표창 40점, 섬산련(섬유산업연합회) 회장 표



제33회 섬유의 날 기념행사에서 금탑산업훈장을 받은 효성 김규영 대표. /연합뉴스

창 35점 등 총 86점이 수여됐다. 금탑산업훈장은 국내 최고 섬유기술 전문가로 타이어코트·스판텍스·안전벨트 원사 등을 세계시장 점유율 1위로 이끈 김규영 효성 대표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김성열 슈퍼리어 부회장이 은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수지 기자 sjkim2935@